

The magazine for cultural life

inter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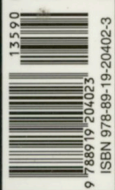
한국 연극계의 거목 임영웅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새로운 음악 이야기
태양의 서커스 <알레그리아>
백남준 아트센터

우리시대 대표 문화인 4인이 말하는
나에게 영감이란?

뮤지컬 <클레오파트라>의
주인공 김선경
<돈 쿼>의 무용수
에곤 마젠과 에릭 고티에

N.Y.
story
첼리스트 장한나의
뉴욕스토리

정가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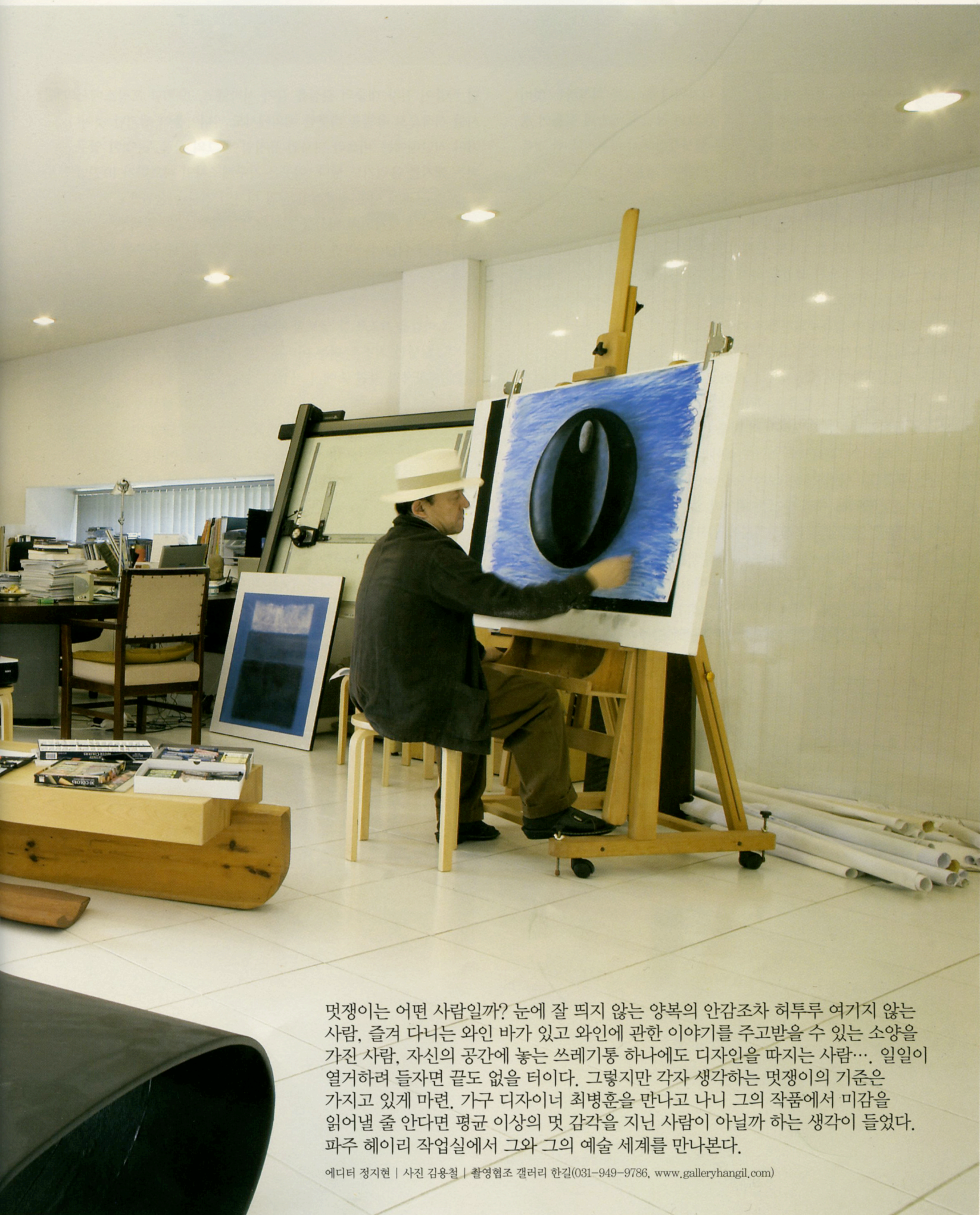


9 788919 204023
ISBN 978-89-19-20402-3

NOVEMBER 2008

수다스럽지 않은 과묵한 조형미에 매료되다





멋쟁이는 어떤 사람일까? 눈에 잘 띄지 않는 양복의 안감조차 허투루 여기지 않는 사람, 즐겨 다니는 와인 바가 있고 와인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소양을 가진 사람, 자신의 공간에 놓는 쓰레기통 하나에도 디자인을 따지는 사람... 일일이 열거하려 들자면 끝도 없을 터이다. 그렇지만 각자 생각하는 멋쟁이의 기준은 가지고 있게 마련. 가구 디자이너 최병훈을 만나고 나니 그의 작품에서 미감을 읽어낼 줄 안다면 평균 이상의 멋 감각을 지닌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주 헤이리 작업실에서 그와 그의 예술 세계를 만나본다.

에디터 정지현 | 사진 김용철 | 촬영협조 갤러리 한길(031-949-9786, www.galleryhangil.com)

예술 가구 디자이너, 가구 예술가, 가구 디자이너 등 그를 지칭하는 엇비슷한 호칭이 혼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그의 작업은 예술과 실용의 경계에 걸쳐 있다. 의자, 테이블, 서랍장 등 일상생활에서 사용 가능한 것들이지만 그냥 ‘가구’라고 말해버리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렇다고 ‘예술적인 형태를 가진 기능적인 오브제인가’ 아니면 ‘가구처럼 사용할 수 있는 조각품인가’하고 따지는 것은 답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를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 작가 스스로도 양쪽의 비중을 50대 50으로 둔다고 할 만큼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작업을 하지 않는다. 물론 디자인에 따라 예술적 측면에 좀 더 치중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계선을 살짝 넘나들 뿐이다. 이런 그의 스타일에 실용주의자들은 가구라면 편리성과 편안함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느냐고 반박할지 모른다.

“가구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제품이지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직접 앉고 사용하는 시간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공간 속에 놓여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이런 것을 고려한다면 가구가 공간 속의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죠.”

디자인이 생활의 중심으로 떠오른 요즘에야 그의 말에 쉽게 수긍이 가지만 30여년 전만해도 이런 주장은 메아리 없는 공허한 울림에 불과했다. 대학 동기들은 대기업이나 전자회사에 입사해 산업디자이너로서 일을 할 때 예술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로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야 했던 것이다. 소위 말해 건축, 화가, 조각처럼 특정 메이저 분야도 아니었기에 마이너리티 예술가로, 아웃사이드 예술가로 지냈다. 그렇지만 앞선 안목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공예대전 등에서 인정받

던 작품이 점차 대중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1996년 프랑스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유럽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마니아층이 생겨난 것이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에 그의 작품 두 점이 영구 소장되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이곳은 가구제조사인 비트라가 1989년 스위스 바젤 근교에 세운 세계적인 산업 디자인 전문 미술관으로 20, 21세기를 대표하는 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모으는 컬렉션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디자이너라면 자신의 작품이 입성되기를 꿈꾸는 대표적 공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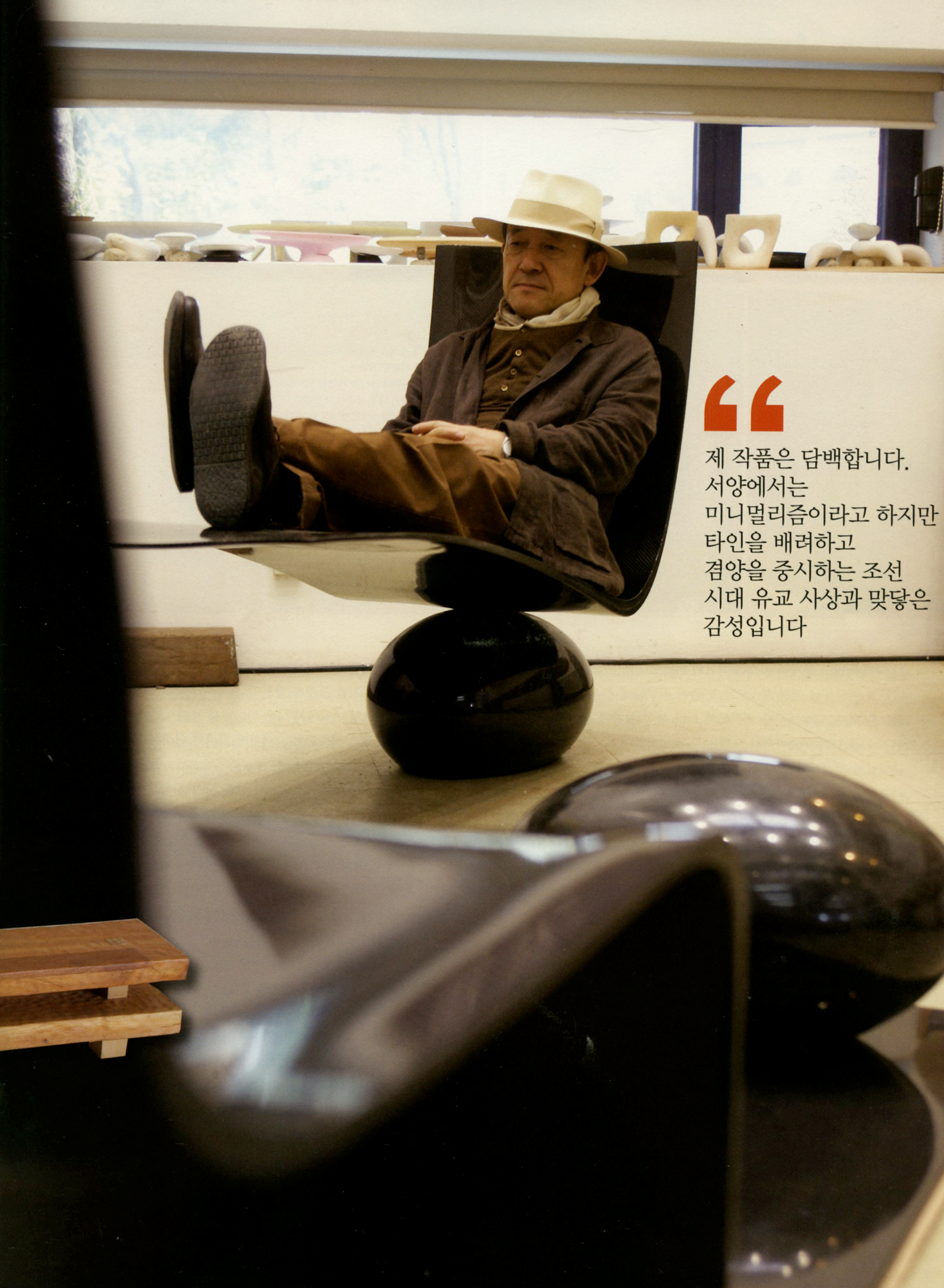
한국적 미감을 기조로 한 ‘글로벌 퍼니처’

강원도 태생인 최병훈 씨는 어려서부터 아담한 산과 소박하고 투박한 화강암 등 한국적 자연 속에서 자랐다. 이런 까닭인지 그의 작품에는 한국적 미감이 두드러진다. 초기에는 쇠대나 소나무의 형상에 비녀로 빗장을 삼은 CD장처럼 우리적인 것을 표현하는 장식성이 많았지만 1990년대 들어서 작품 스타일이 바뀌기 시작했다. 나무와 돌이라는 두 소재가 불안정하게 결합된 형상은 선사시대 고인돌에서 힌트를 얻은 것. 돌이 겹쳐 쌓인 모습은 우리나라 옛 여인들이 소원을 염원하며 서낭당 앞에 쌓아올린 돌무더기를 떠올리게도 한다. 이처럼 한국적인 정서와 결합된 현대적인 디자인은 보는 이로 하여금 묘한 매력을 끌어당긴다.

“제 작품은 담백합니다. 서양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겸양을 중시하는 조선 시대 유교 사상과 맞닿은 감성입니다. 자기 과시나 표현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과 달리 예로부터 우리는 드러내거



- 1 스틸 패널로 만든 타원형 벤치. 심플한 곡선라인과 한 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돌덩이가 묘한 조화를 이룬다.
- 2 차가운 질감의 돌과 따뜻한 질감의 나무 소재로 대비감을 살린 작품.
- 3 한쪽 다리에 돌을 괴어 만든 나무 벤치.



“

제 작품은 담백합니다.
서양에서는
미니멀리즘이라고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고
겸양을 중시하는 조선
시대 유교 사상과 맞닿은
감성입니다



- 1 주말에 와서 작업을 하는 동안 머무는 2층의 생활 공간. 그의 작품이 곳곳에 놓여 있어 미니 전시장의 역할을 겸한다.
- 2 경기도 파주에 자리한 작업실 1층 내부. 날렵한 모양의 나무 상판이 매력적인 테이블은 전시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 3 20여년 가까이 써온 중절모는 최병훈 작가의 트레이드 마크이다.
- 4 파리 '다운타운 갤러리' 앞에서.
- 5 작품 제작을 위해 그린 도면들.

나 티내지 않고 절제하는 것을 최고의 미덕으로 꼽았잖아요.”

나무를 벤딩해서 계단 모양으로 만들어 끝부분에 무심히 돌덩어리를 올려놓은 의자, 단풍나무를 매끈하게 깎아 붙인 상판에 한 쪽 다리는 돌로 된 다리를 달아 아슬아슬한 느낌을 주는 테이블 등은 단순미의 극치이다. 군더더기 장식하나 없지만 한참을 들여다보고 생각케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첫 번째 흥미유발 요소는 손끝으로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듯한 조형성. 앉아도 될지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놓아도 될지 망설여지지만 견고하고 정교하게 연결되어 웬만한 물리적 힘에도 끄떡없음은 물론이다. 그 다음은 가공되지 않은 듯 가공된 돌과 나무 같은 자연소재의 어울림이다. 무거움과 가벼움, 매끄러움과 거침, 자연성과 인위성 등의 공존은 색다른 미감을 전달한다.

“역사적으로 화려하고 고급스런 가구 문화를 가진 프랑스 사람들이 제 가구를 구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의 장식적인 요소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이 가진 것을 못 갖고 있듯 그들 또한 내가 가진 것을 표현할 재주는 없지요. 그렇다면 정답은 나온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무조건 한국적인 것만 내세워서는 경쟁에 이길 수 없습니다. 글로벌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획득하지 않으면 그 지역의 특징을 담은 ‘토산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작가 시오노 나나미도 여자 아이나 주부가 만드는 단순한 수공품도 손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그것은 장인의 손재주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아마추어가 아닌 프로의 머리에서 나온 판타지를 보탬으로써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수공품과 예술품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최병훈 작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그래서인지 파주 헤이리에 위치한 그의 작업실 역시 한국적인 영감과 세련됨이 결합된 모던함이 공존한다. 그가 추구하는 한국적 소재와 디테일에 전체적으로는 세계인의 시선이 꽂히는 느낌이 작업실 전체에서 느껴진다. 마치 그의 카리스마를 전달하듯이...구겨진 도면, 연장들, 그림 한 폭 등등 심플한 공간 곳곳에 놓여진 그의 생각의 잔여물들은 작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공간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그 스치는 공간 하나하나가 예술로 다가온다.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낳은 예술적 영감

새로운 것을 창작해야 하는 예술가들에게 작업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번개가 번쩍하듯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오를 것 같지만 평소에 꾸준히 노력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최병훈 씨는 무엇보다 여행을 최고로 꼽는다. 홍익대학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후 헬싱키 미술디자인대학 연구 교수, 로드아일랜드 디자인대학 객원교수 등을 지냈는데, 그곳에서의 경험은 현재와 같은 모던하고 현대적인 조형성을 구현하는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핀란드에서 지낼 때에는 북극까지 다녀왔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라는 호기심으로 찾아간 곳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 그렇지만 그들의 삶의 속도, 가치관, 도덕적 관념 등은 전혀 달랐다. 내 안의 세계에서 나와 더 많은 것을 보고 겪으면서 작가적 상상력은 더해질 수 있는 법. 이런 맥락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후 근무한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의 경험은 작가로서 방향성을 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 박람회에 참관하는 업무를 맡는 코트라 디자인 부서에서 일하면서 세계 곳곳을 다닐 기회를 얻었던 것이다.

자신을 채찍하는 작가적 기질

멕시코 마야 문명, 페루 잉카 문명, 아프리카 문화 등은 20대 후반이었던 제게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아! 문화라는 게 이런거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뛰고 흥분이 되더군요. 그 때의 인상, 느낌, 잔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형서점조차 잉카, 마야문명 관련 책자가 한 권도 없던 시절에 다양한 문명과 문화를 접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병훈 작가는 이후부터 짬짬이 여행을 다니면서 새로움을 발견하기도 하고, 네팔이나 티베트 등지에서 트래킹을 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는다.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자극을 줌으로써 마음속에 안이함과 나태함이 들어설 공간을 내주지 않는다.

“전시를 하러 파리에 가면 로댕 미술관에 꼭 들립니다. 시내에 있어서 가

기 쉽고 정원에서 산책하기도 좋거든요. 뿐만 아니라 로댕의 방대한 작업량과 커다란 스케일의 작품을 보면서 작가의 정신과 노력을 호흡하고 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위대한 인물을 만나면 자신의 존재가 작고 하찮게 느껴지지 않던가요? 대가의 미술관이나 전시장에 가서 작품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고, 작아지는 것을 일순간 느끼면서 동시에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하며 동기 유발이 됩니다. 학생들과 격의 없이 어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감성을 읽기 위해, 신세대의 감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물론 버거워요. 그렇지만 어떡하겠어요. 그것이 요즘의 문화이고, 내가 거부한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좋은 상황으로 갈 것 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거죠.”

지난 5월 파리에서 열린 두 달간의 개인전은 최병훈 작품에 대한 파리지앵들의 열정과 관심도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오프닝 파티에는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몰려 성황을 이루었고, 수 천만 원을 호가하는 작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 말이다. 최근에는 그의 영문판 화집이 발간되었고, 이를 기념해 헤이리의 ‘갤러리 한길’에서는 그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지난 봄 파리 그랑 팔레에서 선보인 리처드 세라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작품을 보고 이번에 그도 장장 6미터 길이의 의자를 제작해 내보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비겁한 행동이라는 최병훈 작가. 그의 계속되는 도전이 무엇인지 궁금하고 기대된다. ■